

#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 On the Relevance of LIS Research in Korea

김 영 기(Young-Ki Kim)\*

### 목 차

- |                           |                          |
|---------------------------|--------------------------|
| 1. 오래된 이야기,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   | 3.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
| 1. 1 장면 1. 제33회 전국 도서관 대회 | 3. 1 여정 2. 현단계 연구        |
| 1. 2 장면 2.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 3. 2 여정 3. 잡스러운 글쓰기      |
| 2. 지적 유희 - 90년대의 여정       | 4. 학문과 현장, 그 트임의 길을 위하여  |
| 2. 1 여정 1. 연구주제의 현실적합성    |                          |

### 초 록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은 외국의 이론과 기술을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도입해왔다. 연구방법론은 물론 연구주제까지도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의 주된 흐름이 되었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발전단계나 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도서관 현장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외국 이론의 적용에 신중하여야 하며, 연구방법의 선택 역시 그 연구주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의 여과의 과정이 무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연구는 도서관 현장과 밀접히 연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천은 우리 현실의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을 설명하고 개발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 ABSTRACTS

For the past 50 years, Korean library researchers have zealously absorbed foreign thoughts and techniques without filtering them discreetly. Both research themes and methods have been freely borrowed and put into practice. This practice has been taken for granted for LIS researchers in Korea. But, lack of understanding of our own library field, has produced problems for researchers. This is because libraries of each country have its own developmental stage and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 would say that researchers should be cautious in the application of foreign theories. In Korea, this kinds of filtering process has been neglected in the past.

LIS research must have close relations with practical library work. LIS theories and practices in Korea should be hopefully based on the needs of the Korean society. In short, Korea should have a LIS, which serve the needs and ideals of the library and society of Korea.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접수일자 2000년 6월 2일

# 1. 오래된 이야기,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

## 1. 1 장면 1. 제33회 전국 도서관 대회

일 시: 1995년 9월 28일.

장 소: 경북 울진에 있는 한적한 휴양지의 어느 대강당.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회 자리.

세트설명: 강당의 단상에는 도서관계와 학계, 그리고 관련 관계의 대표들이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청중들이 자리에 앉거나 서 있다. 사회자가 기초연설 순서를 알림과 동시에 최성진 교수 단상으로 등장, 마이크를 잡는다. 그는 한국문헌정보학계의 비중 있는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기초연설을 시작한다.

최성진<sup>1)</sup>: (발표자는 이 나라 도서관 봉사  
의 취약한 지적 기반은 이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이 제 기능을 다하  
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  
적한 다음, 한국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활  
동이 정상궤도를 가지 않고 있음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제시함)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잡지를 읽다가 이런  
것도 우리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하고 생각되는 기사와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한국 도서관 전

문직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한국의 도서관과 그 환경을 이루는 한국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선정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구만이 한국 도  
서관봉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영  
국에서 만들어진 문헌정보학 이론들은 기본  
적으로 영국 문화 속의 도서관봉사와 영국  
고유의 여건 속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을 설  
명하기 위하여 정립된 것이고 다른 나라의  
문화환경과 사회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서관현상의 일반적 측면을 경  
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도서관  
이 다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결국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러  
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이 이 나라 도서관봉  
사의 현실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문헌정  
보학 분야 학술잡지의 기사 중에서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별로 관련되지 않은 연  
구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전체의  
54.7%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  
우며, 믿기도 어렵습니다. 도서관봉사가 후  
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는 나라에서 수행되는 문헌정보학 연  
구의 반 이상이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1)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한국도서관협회,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동협회, 1995. 7-14쪽. 한편 이런 논지의 주장은 그가 이 전에도 논문의 형태로 제기한 적이 있다(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3. 81-112쪽). 그 글에서 그는 이 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한국의 도서관 현장과 관련된 연구를 외면하고 외국의 선진 이론들을 따라다니며 시간과 자원을 탕진한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감각 없는 연구는 무용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허구와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논문은 어디서 필요로 합니까? 이 나라에 도서관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연구와 문헌정보학자가 필요합니까?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물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그 동안의 연구들이 과연 한국의 도서관봉사 현장에 쉽게 적용가능하고 유용한 것이었는지, 한국 도서관이 걸려 있는 병이 무엇이며 이 나라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의 입수와 이용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한 것인지 문헌정보학자들은 한 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한국 문헌정보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문헌정보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는 비로소 그 성취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트설명: 발표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함께 대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들의 큰 박수 소리가 잦아들면서 조용히 불이 꺼지며 자막이 흐른다.

자막: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과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 이 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인가? 한국 문

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할 과제인가? 적어도 한국 도서관봉사의 중요한 문제나 필요와 관련된 과제인가?

## 1. 2 장면 2.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일 시: 1970년 1월 10일.

장 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회의실.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자리.

세트설명: 강당의 단상에는 도서관계와 학계, 그리고 관련 관계의 대표들이 앉아있고, 그 아래에는 많은 도서관학과 교수들과 도서관 직원들이 앉아 있다. 김세익 교수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가 이어진 후 사회자가 개회사 순서를 알립과 동시에 이춘희 교수 단상으로 등장, 마이크를 잡는다. 그는 한국도서관학회(현재 한국문헌정보학회) 창립총회에서 발기인 대표의 자격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시작한다.

이춘희<sup>2)</sup>: ... 인사말 ... 회고 ... 과거 10년간(1960년대)을 편의상 둘로 나누어, 전반기를 모방의 시기였다고 하면 후반기는 모색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것을 찾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의 도서관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각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약진하는 70년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모방과 모색의 시대에서 일보 전진한 한국

2) 이춘희,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개회사」, 《도서관학》 제1집(1970), 154-155쪽. 한편 이와 같은 문헌정보학 연구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국 문헌정보학이 성립된 지 10여 년이 지난 1960년대에도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수상,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한울, 1998. 9-17쪽과 같은 책의 부록으로 실려있는 이춘희, 이봉순, 리재철 교수와의 대담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이춘희 외에도 이봉순, 「한국의 도서관 교육」, 《국회도서관보》 제2권 2호(1965), 12-16쪽; 김세익, 「한국 도서관학의 반성과 전망」, 《도협월보》 제7권 10호(1966), 11-14쪽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당시 우리 나라의 도서관계를 이끌던 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학문'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의 도서관학이 연구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 인사말.

세트설명: 조용히 경청하는 단상 단하의 청중들을 카메라가 훑고 지나간 다음 상기된 표정의 발표자를 클로уз 업 한다. 개회사가 끝나고 청중들의 박수소리가 나올 즈음, 주변의 불이 모두 꺼지면서,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표자의 얼굴과 전국도서관대회에서의 최성진 교수의 기초연설 모습이 오버랩 된다. 천천히 화면이 사라지면서 자막이 흐른다.

자막: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처럼 뿌리가 깊은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이분들이 주장할 때의 현실과 오늘의 학문현실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보사회의 논리와 시장 논리가 전일적으로 문헌정보학 현실에 투영되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적 문헌정보학에 대한 문제제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연구주제와 그에 따른 방법론, 그리고 제시 기술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이 지방의 한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니, 여기에 그들의 여정을 간략히 되짚어 본다.<sup>3)</sup>

## 2. 지적 우회 - 90년대의 여정

1990년대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동구 사회주의 권의 붕괴와 80년대 식의 거대이론의 퇴보로 인한 이념적 지표의 상실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혼돈과 상실의 시대에 '탈근대' (post-modernity)와 '정보사회' 라는 담론이 그 지적 공허의 틈바구니를 매우며 우리 사회를 휘감는 대표적인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탈근대라는 말은 1990년대 벽두부터 우리 학계의 식자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 나가더니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진 느낌이다. 그렇지만 정보사회라는 말은 점점 더 그 위세를 더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식사회' 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탈근대가 근대기획의 보류와 실패를 논하던 그 시점에, 그리고 '정보'가 사회적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듯한 이 시기에 엉뚱하게도 '그들'은 근대기획의 핵심 개념의 하나였던 '탈식민성'과 '글쓰기'라는 화두를 붙들고 90년대를 살아왔다. 그것은 그들이 90년대와 그 이후를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공동의 벽으로 다가왔으며, 이 글은 그들이 여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자성적 기록이자 그 결과의 일부

3) 여기서 '그들'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와 교수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동작업실' 멤버들을 말한다. 한편 이들의 활동은 여러 매체로부터 과도한(?) 주목을 받아왔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들을 꼽을 수 있다. 강준만, 「한국 학문의 희망」, 김정근 교수팀, 《(월간) 인물과 사상》 제1권 3호(1998, 7). 59-69쪽; 정재서·임경순·김현·김중성·김성기 좌담, 「正典 없는 시대 다시 시작하는 공부 - 우리 공부의 길을 찾아서」, 《현대사상》 1999, 9. 19-63쪽; 배윤기, 「일그러진 학문풍토에 도전하는 문헌정보학 계릴라들」, 《현대사상》 제3권 3호(1999, 9). 183-199쪽; 이광우, 「외국색채 벗기고 창의성 뿜자 -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부산일보》 1999. 10. 20.

이다.

그 기간동안 그들의 작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문헌정보학의 실체의 확립과 관련된 작업이었으며, 다른 한 가지는 그 실체에 접근하는 학문 방법론과 연관된 일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그 동안 공동작업실을 거쳐 나간 논문 100여 편과 여러 권의 단행본<sup>4)</sup> 속에 부족한대로 나타나 있다.

공동작업실의 구성원들은 그 동안 그들의 행보를 ‘한국적’, ‘우리 식’, ‘자아준거적’, ‘실천적’, ‘실사구시적’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탈식민적 걸음걸이’란 이름을 하나 더 보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업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우리 현실의 규명에 알맞은 방법을 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손쉬운 서양의 모방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현실에서 논제를 건져 올리며, 다양한 연구기법을 적용하며, 유연하고도 ‘잡스러운’ 문체를 사용하는 문체가 그 과정에서 논의되고 실천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이 땅의 도서관 문제를 생각하고 글을 써 오면서 겪게 된 체험과 성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은 학술논문과 현장의 관계, 즉 학문의 사회적 함의와 그 실천성에 대한 고민 바로 그것이었다.

## 2. 1 여정 1. - 연구주제의 현실적합성

학술연구자의 글쓰기는 크게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전문인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을 위한 것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글쓰기 또한 전문인을 위한 것과 대중을 위한 것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전문인을 위한 글쓰기는 학문의 진보와 현장의 개선을 그 과제로 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따라서 이 방향의 글쓰기는 문헌정보학계의 전문인뿐만 아니라 도서관 현장의 전문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한편 대중을 위한 글쓰기는 우리 도서관계나 문헌정보 현상을 사회화시키는 대중적 실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도서관의 현재적 이용자는 물론이거니와 이용하지 않는 일반대중들까지도 포함된다. 도서관에 대한 대중들의 비뚤어진 이해와 그로 인한 본질의 소외현상은 이 부분을 경시하거나 방조한 결과에도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글쓰기의 대상은 크게 전문연구자와 도서관 현장의 사서, 그리고 대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영역은 분리된 것 같으면서도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서로 소통하고 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근대 이후 직업의 분화과정에서 나타난 지식인이라는 직업에 사회가 부여한 사명을 우리 영역에서 다하는 것이 된다.

4) 그 동안 공동작업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나온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한울 1995);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한울 1996); 김정근 엮음, 『디지털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민음사 1997);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한울 1998);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한울 1998); 김영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통해 본 한국사회 지식의 흐름』(한울 1999); 김정근 엮음,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태일사 2000); 양재한, 『공공도서관의 성립과정과 사회적 역할』(태일사 2000);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연구』(근간); 김정근 엮음,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지식산업사 2000)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얼마 전 철학을 전공하는 어떤 사람이 일반 독자는 물론이거니와 동료들마저도 서로의 글을 철저히 외면하는 학문풍토가 팽배해 있음을 꼬집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문헌정보학계에서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논문들을 동료 학자들은 얼마나 성실히 챙겨 읽으면서 지속적인 계승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또한 그 이론의 실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그 이론들에 얼마나 공감하며 이를 업무의 개선을 위해 활용해 나가고 있을까?

지금 강단과 현장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현장은 현장대로 수공업적 장인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학문은 학문대로 울타리 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는 그럴지도 모를 기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반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들은 지금 첨단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와 소통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 아닐까? 매년 그렇게도 많은 학술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사서들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껏 우리에게 알려진 논문이란 형식의 글쓰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글쓰기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구주제

의 혁신, 연구방법의 혁신, 문체의 혁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그들이 던진 의문의 요지는 이렇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널리 읽힐 수 있는 것인가? 이와 더불어 문헌정보학 강단의 언어가 도서관 현장에 다가서기 위한 현단계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흥미이다. 도서관에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흥미란 바로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도서관, 어제의 도서관도 미래의 도서관도 아닌 바로 오늘의 도서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어서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렇다. 흥미 있는 글이 되기 위한 조건, 첫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 것, 둘째 현장 중심적일 것, 셋째 쉬울 것.<sup>5)</sup>

여기에 글쓰기의 문제가 존재한다. 과연 문헌정보학계에서 나온 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현장 중심적인 글쓰기인가? 그리고 절차나 방법, 내용이 도서관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인가? 글쓰기의 주제와 글쓰기의 방법과 글쓰기의 제시기술에 관련된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6)</sup>

이처럼 그들은 현장과 학문이 서로 걸도는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글쓰기의 문제에는 테마의 문제와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그

5) 김정근·김영기, 1996.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 한울, 15.

6) 앞의 글, 16쪽.

제시기술의 문제까지 용해되어 있다. 어쩌면 지난 10여 년간의 그들의 여정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여정, 바로 그것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연구테마의 문제, 즉 학문의 현실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이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문헌상으로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의 일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도서관운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작업을 함에 있어서 '적실성'(relevancy)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학(library, information and archival studies), 적어도 강단 도서관학은 외국의 도서관학, 주로 아메리카 도서관학의 압도적인 영향 밑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서관학 연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시공을 달리하는 아메리카 사회의 도서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이론과 연구방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의 도서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따른다. 바람직하기로는 한국의 도서관학은 한국의 도서관 현장과 그 환경에 대한 관찰에서 일반적 법칙을 도출해 내는 귀납적 방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도서관학은 이 원칙을 그다지 잘 따르지 못해왔다. 아메리카 도서관학의 이론과 접근방법을 한국의 도서관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에게서 매우 후진적인 현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유리된 매우 선진적인 이야기가 학회의 모임 같은 데서 오가는 일이 많았다. 이때 통상 이야기의 내

용이 되는 아메리카의 이론과 방법은 아메리카의 도서관 현실에 대한 관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귀납적 결론이 아닌 연역적 원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sup>7)</sup>

이 때 그들은 적실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 학문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 말은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첫 번째 해결과제로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와 닿았다.

한편 1990년대 초엽의 시기는 공동작업실이 적실성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하여 인접학문의 동향에 대한 관찰과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조사와 토론이 집중된 시기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개시된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학문의 실천성 확보라는 큰 테마 아래 찾아낸 적실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접학문의 동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헌정보학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국사회과학 전반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사고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제대로 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검증과 확신의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였다. 이들 인접 분야에서는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학문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물음들을 비교적 일찍 던지고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서양을 바라보는 것 보다 우리 나라 인접학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이 경우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들 분야들이

7) 김정근, 1990.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보」 제4집, 29-30.

적실성에 대한 반성과 자생력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격려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들은 적실성이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꽤나 먼 길을 돌아왔던 것이다.

### 3.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sup>8)</sup>

해방과 함께 우리 나라에 근대적인 학문이 도입된 지 50여 년에 이른다. 자생보다는 이식의 형태로 시작된 우리 나라 인문·사회과학계는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얼마만큼의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적인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어느 정도 찾아내고 있는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에는 반성적인 기운이 폭넓게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진 이론과 방법에 얽매어 식민지적 지식을 재생산 해내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탈피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학문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반란'의 몸짓들을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러한 몸짓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전술을 터득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들을 모두 발굴하여 하나의 틀 속에서 조직해 내기

로 하였다. 이 때 문헌정보학의 주무기 가운데 하나인 초록(abstract)의 기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작업의 화두는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에 관한 서지연구」였다.<sup>9)</sup> 이 초록작업을 통하여 해방 후 한국사회과학이 식민지학문의 틀을 벗어나 학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보해 내는 전과정을 가능하다면 망라적으로 드러내기로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과학이 한국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규명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명실상부한 '한국적' 사회과학으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를 성취해 가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러한 담론구성이 미약한 분야에 자극과 격려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교육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법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여성학, 인류학, 문헌정보학 등의 11개 분야이다. 이 작업을 위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문헌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내의 여러 도서관들을 돌며 새로운 자료발굴을 위하여 뛰었다. 그리고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파악된 분야별 전문연구자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방문하여 작업의 타당도를 가능한 한 검토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초록작업이 완성되는 데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만 5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리 나라의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면서 그 곳으로 부터의 관찰과 토론에 기초한 의문을 통하여 문헌정보학 내부적으로 '현단계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그것의 연장선에서 사회과학 제하위 분야에서의

8) 이 말은 옹골진 농사꾼 천규석이 1999년 실천문학사에서 펴낸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9) 이 연구는 1995년도 한국민족문화연구소(부산대학교)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대규모 연구에는 공동작업실의 여러 구성원들이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들을 담당하여 연구보조원 팀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탈식민성 담론들을 초록의 형식으로 가공해 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성과가 앞으로 우리 사회과학의 제분과학문 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탈식민성 담론 형성자들 간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의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해내기에 이르렀다.<sup>10)</sup>

그렇다면 인접 학문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노력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서, 학문의 실천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설정된 적실성 논의가 어떻게 자리잡게 되었는가?

우리 나라에 문헌정보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아 그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온지 40년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은 한국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한국 문헌정보학 역시 대체로 미국학문의 영향하에서 답습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헌정보 현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 연구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진단의 부재에 따른 연구자들의 책임 방기라는 질타를 면하기는 어렵다.

텔레비전 화면에 가끔씩 중국의 천안문 거리가 비춰질 때가 있다. 그 넓은 거리가 자전거의 홍수로 넘쳐나고 있는 장면을 본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교통정책은 자동차 연구보다는 자전거 연구가 더 절실할 것이다. 식량이 부족하다면 아이스크림에 관한 연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은 쌀과

보리의 증산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와 쌀·보리의 문제는 절실하고도 기본이 되는 과제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논제부터 현장에서 절실하고 기본적인 것을 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우회의 길을 걸은 뒤에 얻어진 한국의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적실성 있는 학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에 대해 그들은 이전 년대의 벽두에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묻는다. 문헌정보학의 실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과정인 기록자료(graphic record)의 수집-보존-조직-확산(Collection, Preservation, Organization, Dissemination = CPOD)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속체를 강화하고 현대화·첨단화 시켜나가는 일이 실체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실물자원(physical resources) 중심으로, 그리고 배제적일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기관(institution)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의 사정은 서양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모델로 삼는 유럽과 북미의 경우 19세기 후반이래 백 수십 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동안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서관(library)과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의 이름 밑에서 괄목할만한 현장과 깊고 넓은 학문의 실체를 쌓아올린 경험과 전통이 있다. 지금 그들의 말과 실행은 그것의 기초 위에서 있다. 우리에게 이 기초가 아주 없거나 매우 허약하다. 우리의 학문의 연륜이라고 해 보아야 이제 겨우 40여년, 현장은 지금 겨우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는 참이다.

10) 김정근 엮음, 2000.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이처럼 기초가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탈실물자원화, 탈기관화가 제창되고 시도되었을 때 그것은 자칫 우리 분야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웃마저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때 온전한 CPOD의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것의 일부분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이 때 오늘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설자리를 잃고 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선부른 주장이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sup>11)</sup>

### 3. 1 여정 2. 현단계 연구

한편 우리가 적실성 있는 학문, 현장개척에 유용한 학문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문헌정보학의 실제 규명에 매진하자는 주제의 혁신을 제창했을 때 이러한 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자료는 무엇인가?

연구방법은 크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나뉜다. 양적 방법은 자연과학의 통계적 기법을 사회과학의 연구에 도입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설문조사나 가설 검증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를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이라든가 측정을 통한 타당도 조사 등이 그 대부분을 이룬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서는, 그것을 통계 처리한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을 다루고 있는 책을 훑어보면 가히 통계처리법이라 할 만하다. “안다는 것은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숫자의 유혹에 너무 깊숙이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월간) 인물과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다. 지방의 한 언론학자가 언론이라는 거대권력에 맞서 싸워나가기 위해 창간된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험적인 잡지이다. 그 최근호에 익명의 미국 독자가 보낸 글이 실려 있다. 그 글의 일부를 여기에 소개한다.

꽤 오래 전의 일이다. 어느 잡지사가 새로 여성 월간지를 창간하며 그 잡지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실제 구독층을 대상으로 면밀히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 이제까지 보아 온 여성지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쫓고 화제 인물의 스캔들이나 캐는 그런 잡지가 아니라 정말로 읽어서 교양이 될 만한 내용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주류를 이루었다. 만약 그렇게만 만든다면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잡지들은 다 제쳐놓고 그 잡지를 보겠다고 했다.<sup>12)</sup>

그래서 열심히 그런 잡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잡지는 몇 달도 못 가 폐간되고 말았다고 한

11) 김정근,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 거품 섞인 공격전술에서 내실 있는 방어전술로,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서울 : 태일사, 6-7.

12) 「(월간)인물과 사상」, 2000. 미국독자, 이런 미국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칠까? 가능할까?, 제24호, 4월, 65.

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설문조사를 할 때 나타나는 이중성, 다시 말해 설문조사에 대한 정답 따로, 실제 사서 읽는 잡지 따로 하는 식으로 우리는 설문조사도 바른 생활 시험 보듯 한다는 것을 너무도 몰랐던 것이다.

그 글은 최근 각 정당의 공천과정과 그 파문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러한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그 누구도 지역감정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질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지역감정을 청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의 남용이며 오용이다. 즉 자연과학과 공업기술의 발전이 근대 산업사회를 이끌어왔으며, 이에 따른 자연과학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을 철학이나 사회현상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식의 방법론적 일원주의가 아무런 반성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sup>13)</sup>

연구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방법 중시 풍조를 보면서, 그렇게 중시하는 연구방법이 확립되어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고 힘없이 고개를 흔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과연 개척기에 있는 한국의 도서관 현실을 읽어내기에 적합한 것들인가?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현단계를 밝

힌다든지 문헌정보학 실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데에는 변인을 통제하고 표본을 추출하여 0.01의 오차를 이야기하는 식의 통계적 방법이라든가 설문지를 돌리는 방식, 또는 가설 검증식의 방법은 그다지 적합하지는 않았다. 여기에는 문화사의 표층논리를 진위의 잣대로서 평가할 수 없듯이 이처럼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느낌을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적, 기술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제 맛이 우리나라는 된장을 뜨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 보다는 장독이 필요했던 것이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처음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기록된 문서자료와 함께 사회적 사실을 기술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90년 이상을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자료에만 근거하는 역사는 원초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sup>14)</sup>는 한 언론학자의 지적처럼, 결재라인을 통한 업무보고 문서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sup>15)</sup>에는 드러나지 않는 진솔한 이야기를 참여관찰이나 심층 면담과 같은 형식을 통해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때부터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등에 기초하는 연성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사례연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도중에 질적 연구라는 도도한 강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13)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과학학술지에 나타난 통계적 기법 활용의 오류 및 오용의 유형을 낱낱이 분석한 연구서인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최중후·이재창, 1990. 『학술논문과 통계적 기법 - 국내 과학학술지에 나타난 통계적 기법 활용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연구』, 자유아카데미.

14) 같은 책, 35.

대해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찾아 우리 현장을 설명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아래의 글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연구기법들과 필자들이 찾고자 하는 연구방법과의 차별성을 간략하게 드러내어 주는 부분이다.

... 측정이나 조작적 정의, 변인, 그리고 경험적 사실 등에 의해 지배되어 오던 분야가 귀납적 분석, 기술(description), 그리고 사람의 지각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다. ... 참여관찰이나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기법들은 ... 특히 사회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자주 적용되고 있다.<sup>17)</sup>

... 수량화를 통한 교육현상의 이해라는 점에서 소위 양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법은 과거 오랫동안 교육연구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현상과 자연현상의 현저한 차이가 지적되면서 인간현상의 독특한 영역에 적합한 연구접근이 제안,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각 개인의 특유의 경험세계가 있는 그대로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롭게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sup>18)</sup>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사회현상조차도 수량화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소위 양적 접근이 오랫동안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방법론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각 개인의 특유의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양적 연구에 대비하여 이를 질적 연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양적 연구방법을 아예 기피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적 연구, 통계적 기법도 잘 활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은 연구의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적절히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 논문들의 대부분이 양적 연구 중심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도서관 현장을 제대로 그려내는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연구방법에 매몰된 채 그 연구방법의 남용과 오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5)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업무일지》를 예로 들어보자. 도서관에 따라 업무일지의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자료실별 장서현황, 자료실별 이용현황, 유별 열람현황, 유별 대출현황, 직업별 열람현황, 유형별 참고질의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에서 특히 유별 열람현황의 경우 그 정확한 이용자 수나 열람된 장서 수를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업무일지에는 마지막 단위까지 '정확한' 수치가 기록되고, 이렇게 기록된 수치는 일일누계, 월말통계, 연간 누계 등의 형식으로 정리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 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지는 조작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처럼 열람과 서무담당 직원의 경우 아침마다 숫자 끼워 맞추기에 골머리를 앓으며, 주무와 과장의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업무일지가 도서관 장서의 이용에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기본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 16) 물론 이런 식의 접근법이 경험주의에 매몰되어 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석준은 "어떤 특정한 이론 틀이나 개념도식에 따라 현실을 짜 맞추거나 재구성하기 보다는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김석준, 1993.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서울 : 한울, 28).
- 17) Robert C. Bogdan, and Sari Knopp Bikle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1982, 신옥순 옮김, 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 18) 같은 책, 역자서문.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한 그들의 여정이 도달한 것이 바로 '현단계 연구'라는 것이다.

낙후한 현장, 거기다 참고문헌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연구다운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자의 시각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헌세계로 이동시켜 맞춘다고 했을 때 바로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이었다. 어떻게 참고문헌을 구하며 어떤 연구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여 그나마 현실개척에 의미 있는 결과를 생산해 내느냐의 문제였다. 여기서 필자들과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해낸 것이 '현단계 연구' (studies of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쉽게 말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기술해 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문제 자체 속에 함장 되어 있는 해답이 떠오르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하는 형식을 띠는 이른바 '과학적' 방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현단계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선 태생적으로 그것은 우리 현장에서 논제를 건져 올리도록 했다. 처치과정으로는 주로 질적 방법을 취했다. 왜냐하면 다양한 드라마를 품고 있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에는 연구자의 통찰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특수성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질적 기법이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미 생산되어 있는 연구문헌들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인터뷰 기법은 연구자가 자료확보를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기도 했다.<sup>19)</sup>

### 3. 2 여정 3. 잡스러운 글쓰기

실천적 학문방법론을 모색해 오면서 연구테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연구방법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쓰는 방법, 즉 표현과 제시기술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문헌정보학의 실체의 문제, 연성자료를 이용한 질적 연구의 수행, 이러한 드라마를 그려내는 데에는 딱딱한 과학주의적인 문체는 걸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시금 문체의 혁신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 부분은 연구주제나 그 방법의 문제에 비해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우선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이전에도 이와 관련된 몇 편의 구절을 대한 적이 있다.

지금 우리는 학술논저 글쓰기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고, 새로운 착상을 생동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치의 근본을 창의적으로 논하는 것이 학문의 근본과업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근본을 살리는 외형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다채롭게 개발해야 한다. 편지글도 쓸 수 있고, 문답도 택할 수 있고, 도설을 재현할 수도 있고 ...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창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글은 논문이 아니고 문학작품이라고 하면서 배격하지 말자. 문학작품이라도 좋다. 사상의 혁신과 표현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면, 논문이 작품이고 작품이 논문이다.<sup>20)</sup>

19) 김정근, 2000. 문헌정보학에서의 현단계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20) 조동일, 1993. 『우리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45.

나의 문장론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 위에서 구성된 것인가? ... 소위 논문이라는 형식 자체가 근대서구 대학교육에서 성립한 모종의 특수형식을 지칭하는 것이 철학논문 일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음을 명백하다. 좀더 자세히 그 일지된 관념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너무도 막연하고 근거 없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그들의 관념은 이런 것이다. 일인칭을 쓰지 않는 서술문으로 감정의 표현이 없이 매마르게 쓸 것, 엄숙하고 고상한 말들만 골라 나열할 것, 철학사의 기존개념의 조합 속에서만 맴돌 것, 그리고 설명 없는(저자, 책명 등만 나열하는) 주석을 붙일 것 등등이다. 논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논문이란 자기의 주장을 펴서是非(是非)를 가리는 글”이며 여기에 어떠한 일정한 양식이 주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의식하면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자유롭게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지 못한 양식의 고정성은 그 文의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 나는 나의 논문을 세인들이 시라 불러도 좋고 소설이라 불러도 좋고 수필이라 불러도 좋다. 그러나 나의 논문은 명백히 나의 철학체계의 성실한 논술이라는 사실만은 양보할 수 없다.<sup>21)</sup>

이들은 이미 논문이라는 형식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논문이라는 형식을 고집하고 있다. 논문을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이며 동시에 왜 논문이라는 형식성에 맞추고 있는지, 또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가 우리 땅에 맞는지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말이다. 우리가 늘 전범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서양에서조차 이미 반성의 대상이 되는 글쓰기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딱딱한 과학주의적 문체의 대명사인 ‘논문중심주의’라는 형식의 문체와 권위 있는 원전에 기대어 진술한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원전중심주의’의 문제이다.

여기서 논문중심주의는 논문만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글쓰기이며, 오직 논문을 통해서만 학문성이 보장된다는 허위의식을 말한다. 우리학계의 관행은 여전히 수입형의 직절한 글쓰기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위 몇몇의 원전들을 논의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삼는 논문류의 글쓰기와 그 심리가 원전중심주의이다. 결국 인문학 분야에서 글쓰기 부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영민에 따르면 논문이란 눈치보는 글쓰기의 전형이며, 또한 글쓰기에서 눈치보기의 전형이 바로 원전중심주의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원전중심주의라는 고착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원전 바깥도 믿을 만하고 살만하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용기와 성숙, 자긍심과 줯대의 문제로 나타난다고 한다.<sup>22)</sup>

서양의 대가를 원전으로 모시는 행위는 이미 학문의 적실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나름대로 극복해 오고 있었던 문제이다. 소위 말하는 원전은 그들에게는 하나의 안목으로서만 작용

21) 김용옥, 1991. 「哲學의 社會性」, 『도올논문집』, 통나무, 92-94.

22)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영민의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민, 1994.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 7(4); 1995. 원전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7회 문정포럼(5. 19) 발표문; 1994. 글쓰기, 복잡성의 철학: 一理의 해석학을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12호(봄).

할 뿐, '모든 논의의 처음과 마지막을 교통 정리하는 경전'은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우리 현장의 현단계에 있는 그대로 그려내어 그 속에 배태되어 있는 드라마를 노출 시키기에는 이른바 간결한 논문문체는 부적절했다. 복잡한 내용을 담아내는 데는 복잡한 그릇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문체의 실험이 요구되었다. 이 대목에서 '잡스러운' 글쓰기라는 기법이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나온 글이 현장의 사서들에게 '재미' 있고 '쉽게' 널리 읽힌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그러한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그것이 독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굳이 논문이라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이다.

#### 4. 학문과 현장, 그 트임의 길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1990년대의 학문적 여정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았다. 학문의 실천성과 현실적합성, 연구테마의 문제와 문헌정보학의 실체에 대한 접근, 연구방법의 문제와 현단계 연구, 글쓰기철학과 우리 식 글쓰기... 지금은 이 말들을 주워담고 추슬러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 지금까지 던져왔던 물음들을 한국 사회과학이라는 큰 틀로 옮겨서 다시 던져본다.

과연 뚜렷한 현장을 갖고 있는 학문이 현장

과 유리된 채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물고 있는 이 총체적인 모순의 근원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러한 모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현상이 우리 문헌정보학계만의 특수한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만일에 이러한 현상이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면, 우리 나라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근대성의 문제 혹은 탈식민성에 관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부분적으로 조혜정을 통해 발견된다.<sup>23)</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발견되는 총체적 문제는 '보편적 이론에 대한 집착', '외부의 권위에 기댐', '일상성으로부터 유리된 지식 생산'으로 집약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면서 쓰는 언어는 궁극적으로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변화를 알아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이론이나 개념들이 곧바로 우리 사회를 설명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언어를 갖지 못한 사회,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는 사회를 조혜정은 식민지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헌정보학계 역시 식민성에 찌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근대사는 식민지 경험, 해방의 타율성과 미군정의 경험, 분단, 서구중심의 근대화

23) 조혜정, 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 문화』, 16.

와 그 파행, 정치적 비민주 등으로 접철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탈봉건을 통한 근대성(Modernity)의 완성과 탈식민을 통한 주체성 회복이라는 이중의 과제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모두가 '유일하고 보편적'인 인류발전의 틀이라고 믿어왔던 거대한 담론의 그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며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할까? ... 나는 여기서 탈식민화의 방법론으로 지난 4-5세기동안 '보편성'의 자리에서 군림해 온 서구를 상대화시켜 볼 것을 제안한다. ... 이때 우리는 아버지의 언어에서 벗어나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다름'을 포용해 가는 훈련을 해야하며, 자기가 선 '주변'의 자리에서 역사를 기억해 내고, 자신의 일상을 이론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sup>24)</sup>

서양의 이론이 표준이며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도 여전히 보편인가? 통계적 검증으로 대표되는 양적 연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구방법인가? 연구자는 오직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만 말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서구가 중심이 아님을, 보편과 표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유일한 보편자로 군림해 온 서양을 하나의 특수한 역사성을 가진 사회로 이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구를 상대화시키고 문화적 자생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문헌정보학의 제반 현상도 그 내적 측면으로부터 해방시켜 폭넓은 사회·역

사적 자장 안에 놓는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요청된다. 도서관사에 관련된 연구물들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도서관의 역사에 관련된 기술은 도서관 자체에 대한 제도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달동네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달동네만 파고들면 답이 나오지 않거나 틀린 답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부정축재 또는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때돈을 버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sup>25)</sup>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이 사회적 기관이라는 기본명제를 확인하고, 도서관을 그 근저에서 유지·변화·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사회적 역학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도서관이 변화 발전하는 실질적 동력을 규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다른 모든 논리에 우선해서 사회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선적인 역사기술은 명확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서관 내부의 요인들보다는 사회적 역학관계라는 보다 큰 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를 배제하면서 쓰는 역사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도서관 현실을 문화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자포자기와 패권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sup>26)</sup>

24) 앞의 책, 7-8.

25) 강준만, 1997. 『인물과 사상 2』 서울 : 개마고원, 57.

26) 이와 같은 이유로 공동작업실에서는 그들의 책을 출판할 때 가능하면 비교적 독자층이 도서관인들로 제한되어 있는 출판사보다는 도서출판 한울이나 민음사, 지식산업사 등과 같은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들을 통해 출판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것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과가 다른 학문에도 유용함을 알리기 위한 그들 나름의 전술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요즘 들어 학문의 위기라든지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마도 시장 논리가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면서 그것이 학문의 영역까지 파고든 결과일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미 학부제의 논의 속에서, 그리고 정보화의 논리 속에서 그런 징후가 적잖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근<sup>27)</sup>은 현재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의 근저에는 이 땅의 많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정보'와 '컴퓨터'를 앞세우고 '도서관'을 평가절하 하면서 21세기 정보 시대, 지식기반사회를 노래하는 인기지향의 전술이 깔려 있다고 전제한다. 다음, '위기'의 학문을 관리하는 주역들의 전술적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우리 문헌정보학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고 실제 구현의 수단으로 다루어야 할 '정보'와 '컴퓨터'를 앞에 두는 지금의 사태는 역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에너지는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제의 규명과 그것의 실현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져야 한다. 그렇게 규명되고 확립된 우리 학문의 실체를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학문 분야와 협조하며 공헌하는 단계에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오늘 문헌정보학 연구자에게 부과된 사명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실체와 수단의 위치가 뒤바뀐 지금의 사태는 역전되어

야 한다.<sup>28)</sup>

또한 이 땅의 사정이 서양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을 추수하는 것은 우리 분야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기초가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탈실물자원화, 탈기관화가 제창되고 시도되었을 때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설자리를 잃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학문의 구조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구조문제는 사회과학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인문사회과학계 전반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광범위하게 일고 있으며,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그러한 발언이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있어왔다. 우리 나라에 근대 도서관학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1970년,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의 개회사에서 자아준거적 학문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 결과 우리 문헌정보학계는 한국의 다른 인문사회과학계와 마찬가지로 지난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본질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으며, 그것은 오늘날의 학문의 위기로 그리고 학문의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이삼십년의 세월이 흘러 광복 50년과 한국도서관협회 50년을 맞는 1995년 전국도서관대회의 기초연설에서 또 한차례의 외침이 있었다.

27) 김정근,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 거품 섞인 공격전술에서 내실 있는 방어전술로」,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태일사. 6-7.

28) 앞의 글, 6.

그러나 이번에도 메아리 없는 아우성에 그치고 말았다. 여전히 문헌정보학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외면한 채 시류를 좇기에 바빴으며, 학문과 현장은 서로 어긋난 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그 속에서도 일련의 연구자 집단에 의해 지난 1990년대 내내 이런 주장과 실험과 실천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우리에게 위안이 아닌 각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길을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가까운 길을 두고 먼길을 둘러 가는가 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더욱 속도를

내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오류가 전적으로 무용한 것일 수만은 없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반문해 보는 자세가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과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시대 이 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인가?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할 과제인가? 적어도 한국 도서관봉사의 중요한 문제나 필요와 관련된 과제인가?<sup>29)</sup>

---

29) 최성진, 1995. 앞의 글, 13.

## 참 고 문 헌

- 김세익. 1966. 한국 도서관학의 반성과 전망. 『도협월보』, 7(10): 11-14.
- 김영민. 1994. 논문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문학과 사회』, 7(4): 1261-1281.
- 김영민. 1995. 원전중심주의와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제7회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정포럼』, 1995년 5월 19일.
- 김용욱. 1991. 『도올논문집』, 통나무.
- 김정근 엮음. 1996.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울.
- 김정근 엮음.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태일사.
- 김정근 엮음. 2000. 『한국 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 김정근. 1990.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주체의 문제 -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보』(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 1-32.
- 설문원, 차미경. 1999.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의의와 과제.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창립 40주년 기념논문집』.
- 이봉순. 1965. 한국의 도서관 교육. 『국회도서관보』, 2(2): 12-16.
- 이수상. 1998.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한울.
- 이춘희. 1970. (한국도서관학회 창립총회) 개회사. 『도서관학』, 1: 154-155.
- 조동일. 1993. 『우리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 조혜정. 1994. 『탈식민지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 - 제2권 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 문화.
- 최성진. 1993.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최성진. 1995.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 Bogdan, Robert C. and Sari Knopp Biklen.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신옥순 옮김.
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